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October. 2014 | Vol. 03

KIMA WEEK 2014 개막

KIMA Special 01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탐방

KIMA Special 02

6인 라운딩인터뷰
해양관광도시, BUSAN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KIMA + BIFF

영화의 바다 BIFF, 또 다른 바다를 보여준다

KIMA + tour

10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가을의 해운대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메르세데스-벤츠 해운대 전시장
문의: 1688 - 2369(Benz)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해운대 051-623-3421

대표번호 1688-2369(Benz)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001-1886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GLA 200 CDI 2,143cc, 1,580kg, 7G-DCT, 복합연비 16.2km/l(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2 배출량 12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Vol. 03 | October. 2014

발행처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발행인 문철호
 편집인 여한웅
 기획·편집 안효영
 디자인·제작 하늘기획 051.611.3970
 발행일 2014. 10.
 add.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tel. 051.760.1130
 web. www.kimaweek.org

KIMA+ plus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홍보용 매거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필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04 KIMA WEEK 2014

바다를 통해 세계에 알린 이름 '포레아'
 이제는 해양강국 KOREA입니다

Messages | 정의화 국회의장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문철호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장

10 KIMA WEEK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 KIMA+ Culture

船遊(선유),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
 평양감사향연도-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24 KIMA Special 01

해양관광 오피니언리더 6인 라운딩인터뷰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BUSAN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해운대 한화리조트 본부장 | 박봉주
 The Bay 101 marina 부사장 | 전영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권오성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장 | 정용문
 블루마린, 클럽101 대표 | 이성웅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연구위원 | 우석봉

30 KIMA Special 02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탐방
 "바다야, 여름엔 우리랑 놀자~"



36 KIMA+ BIFF

영화의 바다 BIFF, 또 다른 바다를 보여주다
 마린비프존 MARINE BIFF ZONE
 새로운 영화산업의 바다 아시아 필름마켓 ASIAN FILM MARKET

42 KIMA+ People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산업과 문화도 발전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대한요트협회 회장, ㈜세정 회장 | 박순호

46 KIMA+ Tour

10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가을의 해운대

바다를 통해 세계에 알린 이름
'꼬레아' 이제는
해양강국 **KOREA**입니다

장보고에게 '해상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신라인이 아닌 동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 역시 국내의 해상무역을 주도했고,
그가 세운 고려왕조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줄 아는 유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통해 세계에 알린 이름 '꼬레아'는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영문명인 'Korea'로 남아 있습니다.

천 년 전, 동아시아 무역으로부터 수산, 조선강국으로
세계 해양을 주도한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바다로 눈을 돌립니다.

이제는 '해양레저'입니다!
'KIMA WEEK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가
해양강국 KOREA의 새로운 비전을 향한 힘찬 출정에 나섭니다.



세계와 함께 하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의장 정 의 화 **정의화**

2014년 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저는 바다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다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바다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바다 축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앞으로 산업과 관광과 이런 모든 분야와 이어져서 우리 부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제를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노력하시는 여러 관계자 여러분을 제가 축하드리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부산사람으로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바다축제가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인의 바다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IMA WEEK 2014 개막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주 영 **이주영**

지난해보다 한층 더 성장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레저위크’는 이름 그대로, 해양레저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일주일간 즐겁고, 소중한 기억을 남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해운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해수욕장과 마리나 항만이 활성화된 해양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게 되어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약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3천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의 흥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국민은 늘 해양과 함께해 왔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는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5년간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 수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고,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해서 14만 5천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마리나항만과 같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KIMA WEEK 2014와 더불어 부산의 가을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시장 서 병 수 서 병 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축제인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성대한 개막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품격 높은 행사를 위해 정성을 쏟으신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롯한 부산 해안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보트쇼와 국제 컨퍼런스, 요트대회를 겸하는 혼치 않은 해양 관련 축제입니다.

해양레저산업 최신정보를 교류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양관련 분야의 블루칩인 해양레저산업의 약진을 도모하고, 해양강국 비전 실현의 뜻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국내외에 떨치고, 시민들이 바다를 더욱 가까이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국내 레저선박과 기자재 제조업체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폭넓게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이 10월 2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멋진 바다풍경과 해양레포츠 체험 그리고 시네마 천국이 어우러지는 부산의 가을을 여러분 모두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레저문화축제' 'KIMA WEEK 2014'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장 문 철 호 문 철 호



'전 세계가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레저문화축제'를 꿈꾸는 KIMA WEEK 2014 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위크가 어느 덧 두 번째 축제의 장을 엽니다. 첫걸음을 떼고 일 년이라는 시간을 더해오면서 해마다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탐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규모 있는 KIMA WEEK 2014를 준비할 수 있었음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KIMA WEEK 국제컨퍼런스는 '글로벌 수퍼요트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수준 높은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해양정책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하게 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올해 주요행사로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첫 개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보트쇼 중 최다 요트·보트 완제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와 지역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IMA WEEK는 방송과 문화콘텐츠, 무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Marine BIFF zone 운영으로 부산을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알리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IMA WEEK가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산업, 정책,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융·복합적 축제로 자리잡아갈 수 있는 것은 산, 학, 연, 관이 열린 생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NETWORK의 힘일 것입니다. KIMA WEEK는 앞으로도 인적, 물적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선도하며 해양레저 기반의 국내산업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 해양강국 코리아의 국가브랜드가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전 세계의 산업을 주도해온 바다가 이제는 '해양레저'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풍요한 해양, 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두 얼굴을 가졌기에 더 무한한 꿈을 품게 하는 바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능성의 바다를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남다른 안목으로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는 KIMA WEEK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개막을 축하하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2014.9.29(월)~10.5(일) |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대, BEXCO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Grand Opening

9월 30일(화) 11:00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9월 30일(화) 13:30~16:00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부산국제보트산업전

10월 2일(목)~5(일)
BEXCO, 수영만요트경기장



www.kimaweek.org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제3회 광안리달빛수영대회
10월 4일(토) 18:00~22:00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제2회 어린이 요트대회
10월 4일(토) ~ 5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제4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10월 7일(화) ~ 12일(일)
수영강 APEC나루공원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9월 29일(월) ~ 10월 5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Marine BIFF Zone

10월 2일(목) ~ 11일(토)
The Bay 101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한·중·일·러 정책 라운드테이블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서막을 알리는 KIMA WEEK 그랜드오프닝과 더불어 KIMA WEEK 국제컨퍼런스가 9월 30일 벅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글로벌 수퍼요트 전망을 다룬 기조연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중·일·러 4개국의 해양정책 및 협력에 관한 교류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동북아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컨퍼런스와 함께 열릴 KIMA WEEK 2014 개막식에는 기조연설 및 축하를 위해 국내외 주요인사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부산MBC를 통해 방송된다. **KIMA+**

일 정 | 2014. 09. 30 (화) 13:30 ~ 16:00

장 소 |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초청대상 | 국내외 요트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명

공식언어 |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그랜드 오프닝 Grand Opening / 부산MBC TV 생중계		국제 컨퍼런스 Int'l Conference / 부산MBC TV 녹화방송	
am 11:00	개막식 : 개회사, 축사, 비전영상	pm 13:30	Policy Roundtable 정책 라운드테이블 주제 >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11:30	Keynote Speech 기조연설		

Keynote Speaker

기조연설 | '글로벌 수퍼요트 시장의 현황과 전망'



Lorenzo Pollicardo
로렌조 폴리카르도

現, 요트연구컨설팅(CNA Nautica) 수퍼요트 전문 컨설턴트
前, 세계해양산업협회(ICOMIA) 기술위원장
이탈리아 조선협회 회장이탈리아해양산업협회 사무총장

Policy Roundtable

정책라운드테이블 |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Moderator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Speaker



Kim Joon Suk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Wei Zheng
정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부소장



Khromchenko Evgeniy
크롬첸코 예브기니
러시아보트연맹 Primorsky Sailing Federation 기술위원장



Kenji Mawatari
켄지 마와타리
일본 해양산업협회(JMIA) 고문

BUSAN INTERNATIONAL BOATSHOW

2014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10.2(목)~5(일) BEXCO, 수영만요트경기장

“ 국내 유일 육상·해상 전시회 동시 개최
7개국 120개사 818부스 규모
국내 최다 요트·보트 완제품 선보여 ”

국내외 요트, 보트 최신 제품과 해양레저산업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KIMA WEEK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4)이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산 BEXCO 전시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주요 해양레저산업 업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가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을 주도할 첨단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로, 다양한 요트 및 보트, 엔진부품, 마리나 관련 설비, 해양레저장비 등 다양한 해양레저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초 개최에도 불구하고 7개국 120개사 818부스 규모로 참가를 신청,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보트쇼 중 최다 완제품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국내 중소형 선박 제조산업 육성을 촉진시키고 관련 기자재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관련 업체들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 조선기자재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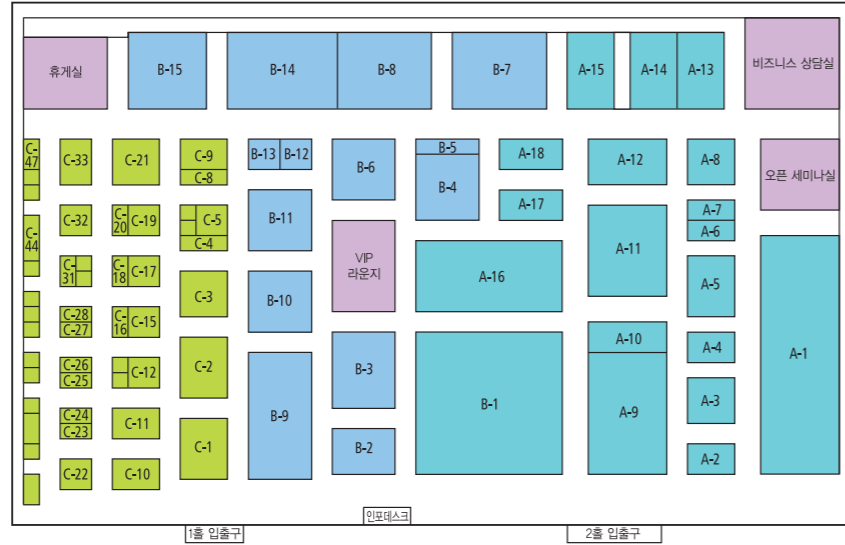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부산 소재 요트 제조업체인 '광동FRP산업'에서 신규 브랜드인 'VERIA'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외에도 HJ Woodenboat(홍진티앤디), K23(우남마린), Meglio(유니온랜드), MINIZET(디텍), Space-F(대원마린텍) 등 국내 제조사 브랜드와 Beneteau, Chaparral, Edge water, Ferretti, Fibra Fort, Jeanneau, Matrix, Minor Off-shore, Princess, Rodman, Schaefer, Smartliner 등 수입 브랜드 제품이 다수 출품된다. 특히 조선과 항공을 융합한 차세대 해양운송수단으로써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인 아론비행선박산업(주)이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자사의 위그선 Aron M-series를 선보여 차세대 비행선박 제조강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BUSAN INTERNATIONAL BOATSHOW

2014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10.2(목)~5(일) BEXCO, 수영만요트경기장



Sea Legs	Sea Legs	A-01	피브라 보트	Fibra Boat	B-09
나대-순신기술	Nadae-Soon Shin Technology	A-01	에스디엔 주식회사	SDN Company Ltd.	B-10
디텍	DTEC	A-01	카약왕-파스코	Kayak King Paddle Sport Korea	B-11
박스플러스	Boxplus	A-01	현대씨즈올	Hyundai Seasall	B-12
반도마린	Bando-Marine	A-01	(주)제일 진공 펌프	JMP Corporation	B-13
알로이 보트웍스	Alloy Boat Works	A-01	골든블루&바다마린	Golden Blue & BADA Marine	B-14
에스엠티-대한	SMT-DaeHan Corp.	A-01	파워마린 주식회사	Power Marine Co., Ltd.	B-15
주식회사 다오요트	Just one Design DAO Yachts	A-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Mercedes-Benz Star Motor	C-01
주식회사 동산테크	Dong San Tech Co.,Ltd.	A-01	스코트라(주)	Scotra Co.,Ltd.	C-02
(주)흥진티엔디	Heung Jin T&D	A-01	대동마린테크	Dae Dong Marine Tech	C-03
중소조선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Medium&Small Shipbuilding	A-01	금호마린테크	KUMHO MARINE TECHNOLOGY	C-04
카본테크	Carbon Tech	A-01	아크세일 보트	Ark Sail Boat	C-05
코리아터빈 주식회사	Korea Turbine Co., Ltd.	A-01	Topclub	Topclub	C-06
코스모	KOSMO	A-01	캠피온 마린	Campion Marine	C-07
펜타코리아	Penta Korea	A-01	WEI-HAI ZHAYANG BOAT IMPORT AND EXPORT CO.,LTD	AND EXPORT CO.,LTD	C-08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	Korea Marine Equipment Global Service Center	A-01	한남총합마린	Hannam Total Marine	C-09
(주)성동마린	Sung Dong Marine	A-02	삼영이엔씨(주)	Samyung ENC Co.,Ltd.	C-10
(주)신도기업	SINDO IND CO.,LTD	A-03	그린에드랩스 코리아	Greenad Wraps Korea Co.,Ltd.	C-11
펜타보트	PENTA BOAT	A-04	(주)삼주	Sam Joo Co., Ltd.	C-12
이레마린	Ireh Marine	A-05	(주)비와이티	BYT Co., LTD.	C-13
주식회사 누리텍	Nuritec	A-06	Raymarine Asia Pty, Ltd.	Raymarine Asia Pty, Ltd.	C-14
현대보트	Hyundai Boat	A-07	코프코리아 주식회사	Kopl Korea	C-14
(주)우남마린	WOONAM MARINE CRAFT Co., Ltd.	A-08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Intellian Tech Co.,Ltd.	C-15
광동FRP산업	KWANGDONG FRP	A-09	씨에스엠테크 플로버 선외기 모터	Flover Motor	C-16
대원마린테크	Daewon Marintec, Co.,Ltd.	A-10	둥이공업(주)	D-I INDUSTRIAL CO.,LTD.	C-17
아론비행선박산업 주식회사	Aron Flying Ship Ltd.	A-11	(주)오엠케이	OMK Corp., Ltd.	C-18
동남보트 레저산업	The Bay 101 Yacht Club	A-12	트리톤 마린	Triton Marine	C-19
오리엔탈우드보트	Oriental Wooden Boat	A-13	백산프로펠러	BaekSan Propeller Co., Ltd.	C-20
케이-크래프트	K-CRAFT	A-14	(주)화이트하우스 코리아	Whitehouse Korea Co.,Ltd.	C-21
HJ우드보트	HJ Wooden Boat	A-15	넥스트(주)	NEXT CO.,LTD	C-22
(주)영진산업	YOUNGJIN INDUSTRY	A-16	(주)비개 요트맨	B Gain Yacht Man	C-23
금강산전	Kumgang Industrial & Electric	A-16	티오알앤디랩스	T · O R&D Laps	C-24
내일	Tomorrow	A-16	지산 무역	Ji San Trade	C-25
신우산업(주)	Shin Woo IND Co.,Ltd	A-16	근영 실업 주식회사	Keun Yung Industrial Co., Ltd.	C-26
(주)와이엔케이	Y&K Yachts Co., Ltd.	A-16	마이카누	Mycanoe Co.,Ltd.	C-27
(주)푸른중공업	GHI YACHTS	A-16	(주)마린 코리아	Marine Core Co.,Ltd.	C-28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 대불지사	KICOX-Daebul Branch Office	A-16	(주)지우교역	CHIEWOO Co, Ltd.	C-29
한성 디젤 기공	Han Sung Diesel Machinery	A-16	에스에스 프로펠러	SS Propeller Ace Marine	C-30
동연보트	DONG YEON BOAT	A-17	벤스코 요트컨벤션&요트 투어	BEXCO Yacht Convention & Yacht Tour	C-31
주식회사 멜리오 유니온랜드	Melio Union Land	A-18	카약피싱캠프	Kaya Fishing Camp	C-32
The Bay 101	The Bay 101 Yacht Club	B-01	아트쇼부산 2015	Art Show Busan 215	C-33
블루마린	Blue Marine	B-01	현대엔코스모스 요팅(주)	Hyundai & Cosmos Yachting	C-34
(주)블루마린 요트	Blue Marine Yacht Co.,Ltd.	B-01	씨월드 다이브 센터	Seaworld Dive Center	C-35
유신HR(주)	Yusin HR Co., Ltd.	B-02	부산 디자인 센터	Design Center Busan	C-36
(주)씨케이아이피엠	CKIPM Marine Group Co.,Ltd.	B-03	아트핸즈	ARTHANDS	C-37
남천 마리나	Namcheon Marina	B-04	제이앤엘커뮤니케이션(주) 요팅매거진	J&L Communications, Inc Yachting Magazine	C-38
마린크래프트	Marine Craft	B-04	대명 리조트거제 마리나베이	Dae Myung Resort Geoje	C-39
제트팩토리컴퍼니	Jet Factory Company	B-04	(주)헤인산업 슈퍼휠즈	Super Wheels	C-40
(주)진일월드마린	Jinil World Marine	B-04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Dept. of Marine Leisure Tourism	C-41
엑스마린	X-Marine	B-05	(주)엠케이 마린	Palace Yacht Club	C-42
토탈마린	Total Marine	B-06	(주)씨아라	Sea Ara Co., Ltd.	C-43
에이치비에스 요트	HBS Yacht	B-07	울트라마린 우든보트	Ultra Marine	C-44
요트월드코리아	Yacht World Korea	B-08	부산 ITU 전권회의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Busan	C-45
셰퍼요트	Shaefer Yacht	B-09	보팅 라이프	Boating Life	C-46
판마틱 코리아	Panmatic Korea	B-09	플루이드 RX	Fluid RX	C-47

국내 요트, 보트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참가업체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 및 수출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전시회 기간 중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요트, 보트 완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 60개사 이상이 참석 예정이어서 그 방문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제한된 상담 시간 외에도 300여명의 참가업체 대표 및 바이어, 업계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Gala Dinner Party'를 해운대 The Bay 101에서 개최하여 참가업체와 바이어와의 자유 네트워킹 시간과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형보트, 세일보트, 동력보트 3개 부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의 보트상 시상식' (Boats of the year award 2014)을 진행, 우수 요트, 보트를 소개하고 참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고급화에 기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이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먼저, 10월 2일 전시장 내 세미나실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내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 설명회'가 개최되고, 이어서 '국내 마리나 개발방향 제언'을 주제로 (주)CKIPM 강석주 대표의 강연이 진행된다. 정부 및 해양레저업계 관계자들의 주제별 강연 및 토론을 통해 국내 마리나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업계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BEXCO 야외광장 체험수조에서는 카누,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해양레

저의 세계로 안내하며, 추첨을 통해 고무보트, 카약, 요트승선권, 최현우 매직씨어터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되어 해양레저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를 주제로 동시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2014)가 작년 이어 올해도 개최된다. 9월 29일, KIMA WEEK 그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관련 정보 교류와 국내외 해양정책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KIMA WEEK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대회로 7개국 선수 3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드래곤보트 대회가 수영강 일대에서 열리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달빛수영 대회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어린이 요트대회가 각각 진행된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와도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 마린비프존 운영 및 연예인, 영화관계자 요트시승행사 등을 진행하며, 크루저요트, 제트보트, 모터보트 등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KIMA**

* 자세한 내용은 2014부산국제보트산업전 사무국(051-740-8600~2) 또는 전시회 홈페이지 www.boatshowbusan.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in Event

개막식

10월 2일(목) 11:00~11:50
제1전시장(본관) 2홀 입구

VIP 오찬

10월 2일(목) 12:00~13:00
BEXCO 제1전시장(본관) 2층 회의실 216~217

환영만찬 GALA DINNER

10월 2일(목) 18:30~20:00
해운대 The Bay 101 야외무대
참석대상 : VIP, 참가업체, 바이어 등

올해의 보트 시상식 Boats of the year 2014 Awards

10월 2일(목) 18:30~20:00
해운대 The Bay 101 야외무대

시상대상 : 전시회 참가기업 출품제품 (7개 제품)

시상주체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운영위원회

* 기업 인센티브 : 차년도 참가비 50%할인 (단, 당해연도 부스규모 이하)

Unit Event

무료체험

10월 2일(목) ~ 5일 | BEXCO 야외광장 체험수조
10:00~18:00 (단, 5일 일요일은 17:00까지)
내용 : 카누, 카약, 펜보트 무료체험

세미나

10월 2일(목) 14:00~16:00 | 전시장 내 세미나실

14:00~15:00 국내 마리나산업 육성정책
해양수산부 심상철 해양레저과사무관
15:00~16:00 국내 마리나 개발방향 제언
(주)CKIPM 강석주 대표

비즈니스 상담회

10월 3일(금) 10:30~17:30 | 전시장 내 비즈니스 상담회장

경품추첨 행사

10월 2일(목) ~ 5일(일) | BEXCO 전시장 내
경품 : 고무보트, 카누, 특급호텔숙박권, 아쿠아리움 입장권,
요트승선권, 최현우 매직씨어터 관람권 등

BOATSHOW in the world

런던 국제보트쇼(LONDON BOAT SHOW 2015)

2015년 01월 09일(금) ~ 01월 18일(일)
런던 - ExCeL London
www.londonboatshow.com

도시의 중심부의 위치한 EXCEL LONDON의 지리상 이점과, 각종 수상작 보트, 요트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이벤트도 실시 될 예정 / 01월 10일 ~12일 크루즈쇼 동시개최
- 엔지니어 및 측량, 침구 및 매트리스, 보트 수리 및 변환, 운송, 보트 야드 장비, 선체 의장, 잡화상 일반, 크루즈, 전자 및 전기 장비, 엔진 장비 및 액세서리 엔진 및 기어, 가구 및 바닥재, 발전기, 컨디셔닝 마리나, 보안시스템, 안전 장비, 트레일러, 보트 접착제, 실런트 및 페인트 등



암스테르담 보트쇼(HISWA 2014)

2014년 09월 02일(화) ~ 09월 07일(일)
네덜란드 NDSM-shipyard
www.hiswaterwater.nl

- 보트, 요트, 선박 관련 종류 각종 아이템 등



암스테르담 해양설비 박람회(METS 2014)

2014년 11월 18일(화) ~ 11월 20일(목)
www.metstrade.com

- 보트, 트레일러 및 차량, 조리, 냉각, 난방 및 건조, 갑판 장비 및 하드웨어, 전자, 전기, 컴퓨터, 엔진, 드라이브, 부품 및 컨트롤 인터리어 & 가구, 마리나 설계, 건설 및 장비계류 및 앵커 장비, 항해, 페인트, 접착제 및 유지 보수, 안전, 보안, 돛, 돛대, 위성, 서비스, 소프트 용품, 의류, 의복 등

마이애미 국제보트박람회(Miami International Boat Show & Strictly Sail 2015)

2015년 02월 12일(목) ~ 02월 16일(일)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 SEA ISLE MARINA & YACHTING CENTER
www.miamiboatshow.com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 마리나 섬, 베이 사이드 3군데에서 개최되며, 전일권 입장권 구매 시 무료 셔틀버스 및 수상택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보트, 엔진, 수상용품, 구명용품, 보트용 액세서리 등

파리 보트쇼(AUTIC 2014)

2014년 12월 05일(금) ~ 12월 14일(일)
프랑스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www.salonnautiqueparis.com

약 700여개 보트 및 모터보트 포함, 200개의 신모델 전시예정
- 보트, 크루즈, 카누, 카약, 요트, 아케이드, 서핑, 스포츠, 제트, 마리나, 모형 배, 모터 보트, 엔진 제조기, 낚시기구 및 페인트, 니스, 다이빙, 포트 서비스, 트레일러, 캐터링, 의류, 항해 기술, 항해 로프트, 세일링 보트 등



칸느 국제보트박람회(Cannes Intl Boat & Yacht Show 2014)

2014년 09월 09일(화) ~ 09월 14일(일)
프랑스 Vieux Port & Port Pierre Canto
www.salonnautiquecannes.com

세계적으로 유명한 boatyards에 의해 전시 된 다양한 요트를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리비에라의 중심에 있는 주요 명품 브랜드의 쇼 케이스 및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
- 보트 및 보트 액세서리 등



영국 사우샘프턴 보트쇼(Southampton Boat Show 2014)

2014년 09월 12일(금) ~ 09월 21일(일)
영국 Mayflower Park/Town Quay
www.southamptonboatshow.com

- 카누 및 카약, 갑판장비, 함재정, 전자제품, 발전기, 어업, 국내수로, 수상 스포츠, 윈드서핑 등



스톡홀름 국제보트박람회(Stockholm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2월 28일(토) ~ 03월 08일(일)
스웨덴 Stockholm International Fairs
www.allforsjon.se

- 보트 및 보트 관련 장비류



함부르크 SMM 조선기자재 및 해양기술 박람회

2014년 09월 09일(화) ~ 09월 12일(금)
독일 Hamburg Messe
smm-hamburg.com

- 구동장치, 컨설팅, 관련서비스, 전기공학, 전자기술, 항구, 항구기술, 정보시스템, 화물선적시스템,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기술, 해운업체, 조선, 선박, 해상 운송, 선박장비, 선박기계, 센서, 감시시설, 환경기술, 방산기술, 조업 등



함부르크 국제보트박람회(hanseboot 2014)

2014년 10월 25일(토) ~ 11월 02일(일)
독일 Hamburg Fairground
hanseboot.de/en

- 보트용 액세서리, 대어용 보트, 모터보트, 세일보트, 서핑장비, 잠수용품, 보트건조, 다이빙 장비, 수상스포츠용품, 각종 장비, 서비스, 보험산업 등



뒤셀도르프 국제보트박람회(BOOT Dusseldorf 2015)

2015년 01월 17일(토) ~ 01월 25일(일)
독일 Messe Dusseldorf
www.boat-duesseldorf.com

세계최대 규모의 보트 전문 무역 전시회
- 낚시용품, 의류, 보트, 보트 트레일러, 대형 & 중형 & 소형 보트, 보트건조, 잠수장비, 보트대여, 보트용 액세서리, 윈드서핑, 수상스키, 수상스포츠용 아이템, 의류, 구명장비, 엔진, 각종 시설, 다이빙 장비 등



일본 국제보트쇼(JAP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3월 05일(목) ~ 03월 08일(일)
일본 Pacifico Yokohama
www.marine-jbia.or.jp

- 모터보트, 소형보트, 고무보트, 보트용 엔진, 레저의류, 도서, 인터리어, 리조트, 수상스포츠, 아웃도어 등

싱가포르 국제요트쇼(SINGAPORE YACHT SHOW 2015)

2015년 03월 05일(목) ~ 03월 08일(일)
싱가포르 MARINA CLUB, SENTOSA COVE
www.singaporeyachtshow.com

- 각종 요트 및 기술, 요트용 액세서리 등

상해 보트박람회(China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4월 09일(목) ~ 04월 12일(일)
상해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www.boatshowchina.com



두바이 국제보트쇼(DUBAI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년 03월 03일(화) ~ 03월 07일(토)
두바이 DUBAI INTERNATIONAL MARINE CLUB, MINA SEYAH
www.boatshowdubai.com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두바이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방문자 및 구매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트 제조 산업에 대한 지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보트 빌더에 효과적인 방안을 두바이 국제 보트 쇼에서 제공하는 것이 두바이 국제 보트쇼의 목적
- 보트, 보트 유지 및 보수, 디젤 엔진, 요트, 크루즈, 보안, 선박용 혁신 시스템 등



자료제공 | 다함엑스포 www.dahamexpo.com

옛 그림 속에서 만난 한국의 뱃놀이 boating in old pictures ②

평양감사향연도 - 월야선유도 月夜船遊圖

船
선
遊
유



평양감사향연도 부벽루연회도 浮碧樓宴會圖 김홍도作(18~19세기) | 종이에 채색, 71.2×106.5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풍악이 하늘을 울리고 돛배가 강을 뒤덮었다.
감사는 누선(樓船)에 높이 앉고
여러 수령들도 다 모여들어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
맑은 노래와 아름다운 춤에 그림자는 물결 위에 너울거리고
성 머리와 강 언덕은 사람으로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

- 청구야담[靑丘野談] 중에서 -



평양감사향연도 월야선유도 月夜船遊圖

김홍도作(18~19세기) | 종이에 채색, 71.2×196.6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야담靑丘野談〉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종2품 평양감사의 부임축하연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평양감사 부임축하연은 단원 김홍도의 붓끝에서도 그려진 바 있는데, 그 성대함이 우리의 짐작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원이 18~19세기경에 그렸다고 알려진 '평양감사향연도'는 '월야선유도', '부벽루연회도', '연광정연회도'라는 세 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었고, 그림의 크기 또한 약 6m에 이르는 파노라마식 대작이다.

세 폭의 그림 중 특별히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를 들여다보자. 우선 뱃놀이의 배경은 처만치 평양성과 부벽루가 보이는 대동강변이다. 넓게 그려진 대동강 위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보이고, 선상연회가 한창이다. 중앙의 가장 큰 누선에 평양감사로 보이는 관리가 좌정하고 있고, 배 앞쪽에 네 명의 악사가 각각 대금, 생황, 해금, 피리 혹은 통소류의 종적 등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어떤 배에는 무희들이 타고 있고, 어떤 배에는 갓을 쓴 선비들이 흥겨워 보인다. 강의 좌우에는 횡불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 무엇보다 지팡이 짚고 구경나온 노인, 아이 업은 아나, 아버지 손을 잡고 나선 아이...,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 그림이 더욱 축제적 분위기로 돋보인다. 문외한의 눈으로 그림을 살피다가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평양감사가 좌정한 '누선(樓船)'이다. 누선(樓船)이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를 배위에 올려놓은 배를 뜻한다. 배의 목적부터가 '유희'에 있었던 만큼 오늘날의 요트와 같은 개념이다. 기록에 의하면, 평양감사가 좌정한 누선은 관선(官船) 위에 아예 '정자각'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 얹은 것으로 확인된다. 좌우 뱃전에서 조선식 큰 노를 사공 2명이 한조로 배를 짓고, 고물에서는 사공 3명이 한조로 조선식 큰 노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장면은 어스름 '달밤'을 흰히 밝힌 '횡불'이다. 사실, 그림 속에서 '달'의 흔적은 보일 듯 말 듯 미미하지만, 달밤이라 더 화려했을 횡불은 그날의 연회만큼이나 즐거운 불거리였을 것이다. 달빛에 취하면 술보다 독한 법이라 했던가. 선유는 낮 동안에도 멋스럽지만, 그 백미는 역시 '월야선유'다. 월야선유의 매력은 흐르는 강물에 비친 횡불의 몽환적인 아른거림과 그 붉은 강 위로 향해하는 묘한 감흥이 아니었을까!

부산은 선유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해양도시다.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줄을 잇는 계절, 한번쯤 달그림자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월야선유'의 감흥에 젖어볼 수 있기를 권한다. 평양감사는 못되어도 ... **KIMA+**

청구야담[靑丘野談]
조선 후기에 편찬된 편자 미상의 야담집으로 여러 야담집 중에서 내용이 풍부하고, 세태 묘사가 자세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미지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견당무역선 Kyun Tang Trade Ship



KIMA WEEK 2014에서도 한국적 船遊선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열리는 백스코 전시장 내 VIP라운지에는 1,200년 전에 사용된 견당무역선의 축소본이 복원되어 관람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배는 1,200년 전,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견당무역선'을 복원한 모형이다. '견당무역선'은 통일신라시대(AD 846년)에 제작된 것 상선(무역선)으로 통일신라시대 삼국의 바닷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통일신라의 무신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나라와 일본을 드나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배로서, 신라인들의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해양유산이다. 해상왕으로 불리던 장보고의 활약은 바다를 다스릴 줄 알았던 신라인들의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무동력 선박으로 대양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견당무역선은 9세기 신라인들의 조선기술을 한 눈에 보여준다. 선박에는 화물의 주인이나 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선실을 구축했고, 주요 항로의 바다특성을

고려한 평평한 배의 구조로 평저구조선(平底構造船)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수밀격벽 구조로 제작되어 배의 한쪽이 부딪쳐 파손되어도 긴급항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놀라운 선박건조기술을 보여준다. 뛰어난 항해술과 탁월한 조선술 그리고 해양을 통해 국가 간 문화와 기술 교류를 실현한 장보고의 견당무역선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감출 수 없는 저력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를 개최하면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의 한 가운데 '견당무역선'을 복원하여 전 세계의 귀빈을 모시고자 한다. 더불어 1,200년 전, 거침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양을 다스렸던 해상왕 장보고의 기상과 한국의 뿌리 깊은 해양과학기술력을 담아 전 세계와 소통하고자 준비한 마음의 선물이다. **KIMA+**

해양관광 오피니언리더 6인 라운딩인터뷰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BUSAN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8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해양관광위원회' 정기회의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160년 전통의 세계적인 광학장비회사인 'ZEISS' 한국지사인 '칼 자이스'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APEC지역 안과 의사 350여 명을 초대하는 인센티브 관광을 준비하던 중, 한국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부산을 찾았다고 했다.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나 '해양관광'이다. '칼 자이스'는 준비과정에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를 알게 되었고, 해양관광 관련 기관과 업계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해양관광위원회에 직접 찾아와 필요한 정보와 함께 직접 컨택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부산해양관광에 관한 가장 트렌디한 정보들을 확보한 칼 자이스는 부산에서 2박3일, 4박5일간 체류하는 해양레저 인센티브관광을 확정했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해양관광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실제적인 가능성을 체감했다. 동시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해양관광도시'가 되고 싶은 부산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KIMA plus에서는 '2014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개막을 앞두고, 해양레저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6인과 함께 하는 좌담의 자리를 가졌다. 자유로운 라운딩인터뷰로 진행된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Panels

정용문 |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장
권오성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우석봉 |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연구위원
박봉주 | 해운대 한화리조트 본부장
전영산 | The Bay 101 마리아 부사장
이성용 | 팀블루마린, 클럽101 대표

Date & Place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해운대 The Bay 101 - MATRIX 760



KIMA plus

유난히 비가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부산에 민간상업마리나가 들어서고 첫 여름인데, 관광 업계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박봉주 | 해운대 한화리조트 본부장

저는 한화리조트 백암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부산에 왔습니다. 백암은 천 쪽은 해양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도 해양레포츠를 연계한 기획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맞는 이번 여름에 해양레저를 연계한 프로모션을 시도했는데, 손님들이 왜 진작 안했냐고 하실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맑은 날이 나흘 밖에 없어 500명 정도가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는데, 반응만큼은 최고였습니다. 한 직원에 의하면 14년 만에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아쉬웠지만, 의미 있는 여름시즌이었습니다.

이성용 | 팀블루마린, 클럽101 대표

7월 말만 해도 줄을 서야할 만큼 호황을 이루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연이어오다보니 여름 다 가도록 잠잠하더군요. 5월에 개장하여 처음 맞는 여름이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The Bay 101을 음식점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홍보에 좀 더 힘을 써야할 것 같고, 특성화 프로그램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석봉 |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성에 안차시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해운대의 핫플레이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욕과는 달라서 요트는 가을에 즐기기에 좋은 레저구요. 뭔가 매력적인 기획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카마위크와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연계행사들을 기획하면서도 자주 거론되는 명소입니다. 영화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는 야외행사를 하겠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보셔도 좋을 분위기입니다.

KIMA plus

부산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고, 준비해야 할 노력들도 적지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Matrix 760

이날 라운딩인터뷰를 진행한 곳은 클럽101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Matrix 760 Yacht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아름답고, 럭셔리한 메가요트로 각종 보트쇼와 국제세일링 파트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Matrix 760은 1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15Knot의 빠른 스피드로 안정된 요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길이 23m 폭 12m | 속도 15 Knot | 최대승선인원 120명 | 부대시설 DJ박스, 스테이지, 갤러리, 미니바, 바비큐

박봉주 | 해운대 한화리조트 본부장

누가 뭐래도 부산의 경쟁력은 해양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양레저를 많이 강조하구요. 제주만 해도 야경이 없는데, 부산은 야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도 야간 크루즈를 경험해보면서 부산에 반했는데, 이런 좋은 관광요소들이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트조정면허를 따고 있는 과정인데, 요즘은 유람관광이 아닌 체험관광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관광으로 요트를 즐기기에 가격은 접근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10만원이 넘으면 보통 4인 가족단위로 움직일 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여행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가격대로는 요트체험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대중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수요를 조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운대 한화리조트에 여름철 평균 방문객이 15만명이고, 일년이면 4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5~10%만 해양레저로 끌어들인다고 해도 수요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대중화가 우선입니다. 파이를 키운 다음 고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계류 중인 요트의 가동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해줄 법제도도 필요합니다.

연간 한 달도 사용 못하는 개인 소유의 요트들을 가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만 해도 수상택시들이 운행되는데, 운송수단이면서 그 자체로 관광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만요트경기장에 고정된 배들을 개인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요트 소유자들에게는 수익이 되고, 손님들은 요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연중 연출해낼 수 있는 시각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구요.



전영산 | The Bay 101 마리나 부사장

The Bay 101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조성된 곳입니다. 2009년 12월 당시, 제19차 지역경제발전특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해운대 동백섬 해양레저지구로 조성하기로 추진된 사항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책이나 지원이 너무 미비합니다. 마리나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방파제와 호안인데,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마리나 시설에 방파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린시티를 비롯한 이 지역은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침수와 좌초 등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일년 365일 중 50일 이상은 강풍과 파도에 의해 정상기능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부산의 파고가 1m 이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1.8m 정도로 봐야 합니다. 저희 The Bay 101만 해도 개장 초기부터 강풍과 파도에 의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제대로 운항을 못할 때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방파제는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방파제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산시에서도 해양관광이 한 부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획조정, 실무 통합할 수 있는 기관 단위의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해양레저산업, 발전 안됩니다. 거기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데, 전문직도 아닌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두세 명 앉아서 그나마도 2~3년마다 바뀌어버리니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국 이상의 조직이 전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필드의 실정을 알지 못하면 해양레저산업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밑바닥 종사자들의 현실을 체감하지 않고 어떻게 해양레저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권오성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책과 규제, 지원문제가 항상 더디지요. 부산이라는 이름 앞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착륙할 때면, '물류중심도시 부산'이라는 광고부터 보게 됩니다. 물류중심의 부산에서 해양레저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만과 물류를 통해 부가가치를 일으키기보다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려면 사람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여전히 물류중심의 도시로 알고 있다면,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정책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양도시로서 자연환경적 잇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으로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큼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간사업마리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해양관광도시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고 육성되어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레저환경이 마련되는 것인데, 부산시만이라도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부산이 해양관광도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항문제가 늘 걸림돌입니다. 어항도 살리고 해양관광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촌계의 수익도 증대될 수 있는 복합마리나 개발이 시급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주변도시들에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끝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상스포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을 해양스포츠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하고, 익숙하게 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해양도시 부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용 | 블루마린, 클럽101 대표

마리나와 요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저희로서는 더 멋진 요트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겠지요. 그리고 시즌과 상관없이 해양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기본적인 노력이죠. 그런데, 메가요트 한 대가 국내 마리나에 정박하여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지 아십니까? 해양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상황들이 예고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요트들이 도시 경관 디자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디자인비를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이 해양관광도시라 소개하면서 요트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는 좋겠지만, 실제 그 요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말 힘듭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요트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고가의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단 10원도 대출이 안됩니다. 요트사업을 하려면 모두 현금이어야 합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양레저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익이 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해양관광도시가 유지되는 겁니다. 정책이나 행정이야 임기가 다하면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사업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수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정을 누가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제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래야 후발주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시의 다이내믹을 이루기 위해 사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합니다. 법 제도 마련이나 관련업종의 연계프로모션 등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정용문 |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장

상식적으로 봐도 부산만큼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부산입니다. 물류보다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해양관광활성화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산광역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 한국관광공사도 들어가야겠지요. 저희 동남권협력지사 뿐 아니라, 본사에서 올해부터 요트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의 실행조직인 부산관광공사가 협의체를 이루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KIMA WEEK가 벌써 2회째 열리고 있지만, 저도 부산에 내려와서야 이런 해양레저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다채로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지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표방하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진 만큼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해마다 중앙지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도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을 겨냥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기획하되, 디렉스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부산시가 앞장서서 풀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된 해양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석봉 |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연구위원

해양관광산업에 먼저 뛰어든 분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끊임없이 빅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지원문제를 시에 제안하고 있고, 업계에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요트를 이용한 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관광성장을 볼 때, 국민일인당 소득이 1만불 정도면,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1만5천불 ~ 2만불이 되면 대부분 골프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2만5천불~3만불이 되면 해양레저가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 워낙 힘겨운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까닭에 해양레저, 해양관광을 여전히 사치성 업종으로 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트도 해양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 엘리트스포츠로 육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람중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관광업 쪽이 호황이고, 사회적 트렌드로는 융복합이 대세이다 보니, 해양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시에서는 체육진흥과 담당 업무이다 보니, 융복합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요. 사실, 공조직은 규모가 크다보니 조금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으로 융복합을 기획하기도 쉽지 않구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같은 기관이 적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가 함께 하는 글로벌해양레저축제를 선포한 'KIMA WEEK'와 같은 융복합형 해양레저축제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산업체들이 산업과 문화를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양관광의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KIMA+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제작현장 탐방

I really enjoyed it



“바다야, 여름엔
우리랑 놀자~”

KIMA WEEK는 올해도 방송 콘텐츠를 통해 해양레저와 대중의 만남을 주선했다.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며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연출 윤성준, 장성탁)는 부산MBC가 제작하는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바다야 놀자'는 올해 시즌2를 이어가며 개그맨 유민상, 양상국, 배우 김혁, 방송인 채드 커튼 등 4명의 MC를 투입하여 한층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구성을 보여주었다. 매주 해양레포츠 종목을 배운 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안겨주는 리얼체험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즐거운 제작현장을 찾아가보았다.

#. 8월 30일
am 8:00,
송도해수욕장

모처럼 맑은 날씨에 제작진들은 일단 안심이다. 태풍 너구리 상륙으로 폭풍우 속에서 강행한 첫 촬영

을 생각하면, 오늘은 정말 감사한 날씨다. 고생은 되어도 작렬하는 태양아래 구릿빛 건강미를 보여주는 것이 여름철 해양레포츠쇼 다음일테니. 어림잡아도 30명은 더 되는 스태프들이 이른 아침부터 베이스캠프 주변을 서성이고, PD를 중심으로 촬영스타프들의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ENG카메라에 6mm 카메라 4대, 그리고 하늘을 나는 헬리캠과 1인치 시점 영상의 즐거움을 더하는 35mm 액션캠까지 모두 10대의 카메라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의 영상을 얻어내야 한다. 리얼 체험프로그램인 만큼 MC들이 느끼는 해양레포츠 포츠의 익사이팅함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PD와 카메라 감독들의 미팅이 끝날 무렵, 저만치 MC들이 도착했다.



바다야 놀자 시즌2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출연자 구성이다.

#. 4MC에
부여된 캐릭터
'농놈농놈'

해양레포츠쇼의 즐거움과 배우는 과정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출연자를 찾아야 했던 제작진은 개그맨을 중심으로 한 네명의 연예인으로 MC를 구성했다. 그리고, 각기 어울리는 캐릭터를 부여했다.

4MC의 리더격인 개그맨 유민상은 보이는 대로 '똥똥한 놈'이다. 큰 덩치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웃음을 주지만, 덩치만큼 여유로움으로 출연자들을 다독이는 진행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촌놈' 캐릭터로 유명해진 개그맨 양상국은 해양레포츠에서도 '촌놈' 캐릭터를 유지하기로 했고, 부산에 사는 캐나다출신 방송인 채드 커튼은 무한공정을 넘어 엉뚱하기까지 한 '이상한 놈'으로, 농구선수 출신 배우 김혁은 '잘 생긴 놈'의 캐릭터로 프로그램 진행에 독특한 맛을 더했다. 오프닝부터 MC들의 거침없는 입담과 타고난 개그본능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웃음소리를 감추기가 쉽지 않았다.



#. 오늘의
미션?

8월 30일, 오늘 녹화분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송도해양스포츠대회에 출전하는 미션이다. 출전종목은 아찔한 바다 다이빙과 카약대회 출전!

100년 만에 재현해냈다는 송도해수욕장의 바다 다이빙대 위에 선 MC들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5m 높이에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바다로 침범 뛰어내려야 하는 오늘의 미션은 그동안의 미션을 통틀어 최고난이도인 것 같다.

모두 7회 녹화로 14회분으로 방송될 '바다야 놀자'에서 MC들이 체험해야 하는 미션은 모두 17개 종목, 대부분 처음 경험해보는 종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션수행 이후의 표정들은 한결같이 '짜릿한' 쾌감이었고, 좀 더 즐기고픈 아쉬움이었다.

해양레포츠 종목별 체험과 체험사이에는 바닷가에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시민들의 즉흥적인 참여로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 또한 여름철 해변이라는 공간이 선사하는 유쾌한 정서이자, 독특한 매력일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이어진 녹화였지만, 탁 트인 바다와 유쾌한 출연진들 덕에 스태프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나지 않는다.

1회 녹화	송도해수욕장	패들보트, 수상스쿠터, 씨워킹, 수상스키
2회 녹화	The Bay 101	요트, 땅콩보트, 제트스키, 제트보트
3회 녹화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세일요트, 플라이보드
4회 녹화	울산진하 해수욕장	머드체험, 드래곤보트, 블롭, 비치발리볼
5회 녹화	송도 해양스포츠제전	바다다이빙, 카약
6회 녹화	해양대학교, 태종대	스쿠버다이빙
7회 녹화	BEXCO	KIMA WEEK 부산국제보트산업전 현장중계



#. 너, 바다랑
놀이봤어?

촬영은 2주에 한 번 진행되고,
1회 촬영 분으로 2주 분의 방송
으로 편집된다.

국내에서 해양레포츠만을 소재로 예능프로그램을 시도한 것
도, 해양레포츠쇼를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도 부산MBC
가 처음이다.

제작진에게 방송콘텐츠로서 해양의 가능성을 물었다. 작년에
이어 2년 째 '바다야 놀자'의 구성을 맡고 있는 김현희 작가는
"해양레포츠... 굉장히 보여주고 얘기할 거리가 많다. 부산이
니가 가능한 것 같다. 예능이든, 교양이든 그야말로 콘텐츠의
바다인 것 같다. 단, 계절성면에서 제한적인 게 아쉽다. 사계
절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안전상의 문제까지 해결한
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해양레포츠쇼가 될 것 같다" 라며 제작
후기를 밝혀주었다.

2014년의 여름을 부산의 바다랑 놀다간 네 명의 MC에게도 출
연 후기를 물었다.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다.

"이전엔 미처 몰랐다. 해양레포츠가 이렇게 다양한 것도 몰랐
고,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건지도 몰랐다.
누구든지 바다가 싫다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다. 너 바
다랑 놀아봤어?"

일하는 곳은 일터고, 노는 곳은 놀이터다. 그곳이 실내이건 야
외이건,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터이고, 놀이터이기에
즐거운 공간, 활기찬 공간이 된다. 이제는 바다가 놀이터다.
해마다 여름이면, 부산 바다에 올라 퍼질 오프닝 멘트를 기대
해본다. **KIM+**

"부산MBC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Marine Leisure Sports Show



해양레저 경험이
없어서 처음엔 많이 겁났어요.
하나씩 배우다보니,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안하고 지냈을까
싶더라고요. 저처럼 겁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소개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촬영이었습니다.
- 김혁 -

'바다야 놀자' 출연하면서
바다에서 놀 거리가
정말 다양하고 많다는 걸 알았어요.
촌스럽게 물장구 그만하고
이젠 해양레저를 즐기세요.
내년 여름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ㅋ
- 양성국 -

해양레포츠쇼
바다야 놀자



호감했습니다.
요트 타고,
제트보트도 타고... 그것도 전세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키니 미녀들이 없었다는 점...
다음부터는 꼭 비키니 미녀들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 유민상 -

새로운 도전은 늘 흥미로웠고,
함께 한 게스트들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바다야 놀자'를 통해 부산의 많은 지역을
알게 되었고, 여름철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들에 눈이 열렸어요.
나에게 이 멋진 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I really enjoyed it!
- 채드 커튼 -



〈참고〉 100인승 이상 대형요트도 기간중 이용가능 하도록 준비중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영화의 바다 BIFF, 또 다른 바다를 보여준다

1996년 9월 13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탄생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슴 벅찬 개막식 현장을 기억한다. 개막식과 함께 오프닝 작품인 '비밀과 거짓말'이 상영된 그곳은 다름 아닌 수영만요트경기장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순서를 맡아 개막식 무대에 섰던 호스트와 게스트들은 한결같이 '영화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공감하고자 했다.

어느새 19년째를 맞으며 '아시아 영화계에 이르는 생생한 물결을 경험하고 세계영화계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영화의 바다'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2014년 BIFF가 보여줄 또 다른 바다를 소개한다.

마린비프존 MARINE BIFF ZONE

작년 4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KIMA WEEK 2013'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국제해양레저축제인 KIMA WEEK가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면 해양수도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해양레저산업과 영상산업이 모두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된 일이다. 첫 해에는 영화제 기간 중 Marine BIFF Zone 운영과 요트 쇼케이스 등 연계행사를 진행했다. 영화제를 방문한 국내외 영화인들과 초청 게스트들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마련된 12대의 요트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영화뿐 아니라 해양관광도시로서 부산을 느끼며 더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는 만족스러운 평이었다. 이에 올해는 두 행사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마린비프존(Marine BIFF Zone)을 동백섬 입구의 'The Bay 101' 마리나로 옮겼다. 마린비프존에서는 영화제 기간 중인 10월 2일부터 11일 사이 배우와 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영화계 관계자와 게스트들을 위해 요트투어를 지원하게 된다. 소규모 미팅은 물론 선상인터뷰 등의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이미 전국의 파워블로거들에 의해 포스팅되고 있는 부산의 핫 플레이스이기도 한 'The Bay 101' 마리나는 요트투어 외에도 바다를 품은 부산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다. **KIMA+**



요트 선명	규모	탑승 인원	항차 횟수
Ferretti 780	78ft	총 20명 (승무원 3명 포함)	1일 1~2회 (1시간)
Yacht B	52ft	총 29명 (승무원 4명 포함)	1일 1~2회 (1시간)
Merdian 459	47ft	총 12명 (승무원 2명 포함)	1일 1~2회 (1시간)
Lagoon 43	43ft	총 15명 (승무원 2명 포함)	1일 1~2회 (1시간)

■ 예약 안내
사무국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이용가능 (사용일시 및 요트 종류)

문의 | KIMA WEEK 2014 사무국
T. 051.760.1143 (송천행 차장)

새로운 영화산업의 바다
아시아 필름마켓 ASIAN FILM MARKET

2



BIFF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다라면 아무래도 AFM이라는 '비즈니스의 바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 영화산업의 주요 마켓 중 하나인 아시아필름마켓(Asian Film Market)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의 성공에 힘입어 2006년에 처음 출범했다. 아시아영화산업의 중심을 꿈꾸며 부산을 찾은 많은 영화인에게 새로운 영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꾸준한 성과를 거뒀던 아시아 필름마켓은 해마다 영화제 기간 중에 아시아프로젝트마켓(Asian Project Market, 구 PPP), BIFCOM(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 Busan International Film Commission & Industry Showcase)과 함께 개최되는데, 올해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백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AFM은 세일즈부스 조기등록부터 성황리에 마감되어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신규참가업체 수만 봐도 지난해에 비해 2.5배

늘었고, 전체 등록신청업체 수는 지난해(79개)보다 약 80%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유력 영화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가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우삼 감독의 '태평륜'(2014)을 제작한 베이징 겔로핑 호스, '엽문', '화피' 등 화제작을 만든 골드섬픽처스 등 중국을 대표하는 제작사들이 처음 참여하고, 중국 영화계의 간판스타인 쉬쥔, 닝하오, 황보, 원장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이지엔터테인먼트도 부스를 연다. BIFF는 중국영화계의 활발한 참여가 지난 7월 체결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에 의해 양국 간 합작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AFM을 자국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이자, 아시아권의 한류를 자국 영상산업과 연계시키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특히 2014 AFM이 캐스팅마켓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시범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업체와 바이어 수는 더 늘어나고, 한·중 문화콘



텐츠 교류 확대에 의해 세계 영화시장에서 AFM이 갖는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BIFF는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영화진흥기구(EFP) 공동관에는 유럽지역 30여 배급사와 영상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미국에서는레이크쇼어 엔터테인먼트 등 중대형 배급사와 아시아 장르영화를 제작해 온 XYZ필름이 처음 참가를 신청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켓기간 중 함께 열리는 다양한 부대행사 또한 토털 비즈니스 마켓으로서의 매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올해는 북투필름, 천만제작자 포럼, 아시아스타 캐스팅 포럼, Film Fund Talk, Ties That Bind(TTB), 영화진흥위원회 인터스트리 포럼, BFC 프로젝트 피칭,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 국경 없는 협력 글로벌 영상인프라 포럼, 모태펀드의 밤 등으로 주요 부대행사가 한층 더 다양해졌다. **CMA+**



북투필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에서 출판산업과 영화산업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마련한 영화-출판콘텐츠 연계 행사인 '북투필름'이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북투필름은 원작 권리의 거래를 원하는 출판사와 영화 감독 및 프로듀서가 만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자리로,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2014 북투필름은 증견작가의 새로운 생각과 시선을 담은 성석제의 『투명인간』(창비)과 공지영의 신작 『높고 푸른 사다리』(한겨레출판사)와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집단을 다룬 전민식의 신작 『13월』(북폴리오)과 도진기의 『유다의 별』(황금가지) 그리고 역사물로 주진의 『직필』(고즈닉 출판사)이 피칭행사에 참여한다. 아동문학으로는 『오월의 달리기』(도서출판 푸른숲), 희곡으로는 최우근의 『이웃집발명가』(도서출판 북극곰)가 피칭 무대에 오른다. 야구만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최훈의 『클로저 이상용』(알에이치코리아), 액션영화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늑대처럼 울어라』(다음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나는 너를 보았다』(네이버)도 올해 북투필름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로젝트 피칭	일시 : 10월 6일(월) 10:00~11:3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비즈니스 미팅	일시 : 10월 6일(월) 13:00~19:00 10월 7일(화) 10:00~19: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멀티미팅존 ※미팅예약 문의 : seminar@asianfilmmarket.org

천만제작자 포럼

Producing Blockbusters: 10 Korean Producers of Record-Breaking Hits

1998년 멀티플렉스 보급으로 변화된 관람환경은 2003년의 <살미도>를 시작으로 2014년 <명량>에 이르기까지 12년간 10편의 천만 이상의 관객을 유치한 작품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제작자들이 모두 모여 제작 환경의 변화, 제작자와 연출가의 역할, 투자배급 환경의 변화 등 한국영화제작의 현실과 전망을 논한다.

· 일시 : 10월 8일(수) 16:00~18:00
·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아시아 스타캐스팅 포럼

Asian Star Casting Forum for Global Co-Productions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에서는 2015년 마켓 10주년을 맞아, 전세계와 아시아시장을 연결한 아시아영화 프리세일마켓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 스타캐스팅 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아스타 및 아시아의 매니지먼트 업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세계

의 감독 및 프로듀서들에게 대표적인 회사와 회사의 주요인물들을 소개하고 국가별 업계 정보를 제공하는 포럼을 열어 국내외 캐스팅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미주, 유럽의 동아시아 공동제작 관심 급증에 힘입어 올해는 한·중·일 대표매니지먼트 7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매니지먼트 상황 및 각 업체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 대표 배우들을 소개하고 아시아스타 및 매니지먼트사들이 함께하는 리셉션이 치러질 예정이며 매년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국제간 캐스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업체 및 국가상황을 심도 있게 소개할 계획이다.

· 일시 : 10월 7일(화) 13:00~15:00
·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필름펀드토크

전세계 주요 영화 펀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필름펀드토크'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들을 소개하고, 지원 방법, 펀딩 지원 예산, 지원 범위 등을 아시아필름마켓과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 참가한 전세계 프로듀서들에게 안내한다.

특히, 유럽공동체 최대 펀드인 유리마주, 프랑스 외무성국제공동제작 펀드 인스티튜트 프랑세스, 독일 최대 펀드 필름온트메디엔슈티퓌트의 대표급들이 직접 패널로 나서며, 한국 글로벌펀드 대표주자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아시아 독립영화 지원에 앞장서는 아시아시네마펀드도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일시 : 10월 8일(수) 13:00~15:00
·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TIES THAT BIND 아시아와 유럽 영화프로듀서 워크숍

올해 6회를 맞이하는 'Ties That Bind-아시아와 유럽 영화 프로듀서 워크숍'이 2014년에도 프리올리베네치 아지올리아영상펀드, 유럽영상산업기구(EAVE), 우디네극동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Ties That Bind (TTB)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5명씩 선발된 10명의 영화 프로듀서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개발단계 장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2회의 워크숍에 참여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영화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시나리오 개발, 아시아-유럽 공동제작,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 공동제작의 법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아시아 필름마켓에 참가하는 아시아, 유럽 투자자 및 세일즈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 갈 것이다. 1차 워크숍은 4월 이탈리아 우디네극동영화제(2014년 4월 25일~5월 3일)에서 열렸고, 2차로 오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2014년 10월 2일~11일) 아시아필름마켓 기간 동안 진행된다.

TTB 워크숍	일시 : 10월 4일(토)~10월 8일(수) 장소 : 씨클라우드호텔 25층 씨스카이룸
TTB 프로젝트 미팅	일시 : 10월 5일(일) 10:00~19:00 10월 7일(화) 13:00~19: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멀티미팅존 ※온라인사전미팅신청

KOFIC 인더스트리 포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는 아시아필름마켓 기간 동안 글로벌 제작 배급 활성화를 위한 KOFIC Industry Forum을 개최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뉴미디어 시대의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영화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영진위 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작과 1:1 미팅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세미나 1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차세대 파이낸싱 일시 : 10월 5일(일) 15:30~17:3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세미나 2	디지털 영화자료의 보존 및 접근에 대한 전략 과제들 일시 : 10월 6일(월) 15:30~17: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토크 콘서트	디지털 온라인 시장과 한국 영화 산업의 변화 일시 : 10월 7일(화) 10:00~12: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한국 영화계와의 만남	일시 : 10월 5일(일)~7일(화) 10:00~19: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Korean Film Center D08 프로젝트 미팅존

KOCCA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부산국제영화제가 주최하고 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PGK)과 아시아필름마켓이 주관하는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린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2013년 총상금 6억원)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영화 산업 관계자들에게 최초로 선보이는 행사이다.

올해는 2013년 수상작 중 업선된 7편이 선보일 예정으로, 한국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6편의 극영화 콘텐츠와 글로벌한 매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프로젝트 피칭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제작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난해에는 6편의 작품이 참가하여 40회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영화산업과 성공적인 인연을 맺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은 공모를 통해 검증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국내외에 소개하며 지난해의 성공을 이어가고자 한다.

프로젝트 피칭	일시 : 10월 6일(월) 13:00~14:3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비즈니스 미팅	일시 : 10월 6일(월) 15:00~19:00 10월 7일(화) 10:00~13:00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멀티미팅존

국경 없는 협력

Borderless Collaboration with China

셰퍼드 멀린 리더 & 헨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영화의 개발, 파이낸싱, 제작 및 국제 배급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제작과 그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발표한다. 본 발표는 제작자, 투자자 및 배급자 모두에게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인 셰퍼드 멀린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1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셰퍼드 멀린은 1927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기업업무, 대형 소송 및 복잡한 금융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다.

Chambers USA와 Legal 500 U.S.는 셰퍼드 멀린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미국 내 최고"로 선정하였고 Corporate International Magazine은 셰퍼드 멀린을 캘리포니아 주 "올해의 엔터테인먼트 로펌"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많은 간행물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동 분야의 변호사들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분야의 최고로 평가하고 있다. 셰퍼드 멀린은 트랜스포머, 트와일라잇, 미션임파서블 시리즈 등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의 법률자문을 했다.

· 일시 : 10월 5일(일) 10:00~12:00
·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글로벌 영상인프라

For the Better Future of the Busan Global Infrastructure for Film Industry

한국노동연구원은 영화진흥위원회 및 부산영상위원회와 함께 부산 기장에 건립 예정인 글로벌 영상인프라가 부산이 글로벌 영상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스튜디오와 디지털후반작업기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영상인프라를 소개하고,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타난 이에 대한 반응과 기대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화제작사의 부산 로케이션에 대한 전폭적 유인체계의 구축, 포스트프로덕션 사업체의 활성화 및 우수한 영상인력의 양성 및 고용 등을 핵심으로 부산 영상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부산 영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관련 전문가 및 포럼 참여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일시 : 10월 8일(수) 10:00~12:00
· 장소 : BEXCO 제4전시홀 내 이벤트홀

모태펀드의 밤

Film Investors and Producers Night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Korea Venture Investment Corp.)는 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모태펀드의 밤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모태펀드의 밤'은 영화 투자자와 제작자간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결성된 1조원 규모의 영화 펀드 소개와 투자자와 제작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일시 : 10월 7일(화) 17:00~20:00
· 장소 :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시실리움 & 카프리로움

PARK SOON HO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산업과 문화도
발전합니다”

박 순 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대한요트협회 회장
㈜세정 회장

지난 7월 15일, 대한체육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선수단장으로 박순호(68) 대한요트협회장을 선임했다.

박순호 단장은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세정 대표이사로서 지역민에게는 메세나운동을 비롯한 사회공헌도 높은 나눔 경영의 리더로 더 유명하다. 특히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온 박 단장은 2003년부터 대한요트협회를 이끌며 비인기 종목 육성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쏟아 왔다. 그 결과, 한국이 요트 종목에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1998년 방콕 대회부터 4회 연속 종합 2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을 맡으면서 체육계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대회를 기대하고 있다. 금메달 90개 이상을 목표로 박순호 단장을 경기개막 10여일 앞두고 만나보았다.



Q. 인천아시아게임이 10여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8월 일정을 돌아보니 부산보다 서울(인천) 일정이 더 많았네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행사나 간담회, 발대식 등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회의나 회담, 인터뷰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입촌 예정일이 결단식과 함께 9월 12일인데, 입촌하게 되면 대회기간 중에는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한술밥을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부상선수가 없도록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겠습니다.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선수들과 의기투합하여 금메달 90개 획득,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세정'하면, 사회공헌, '박순호 회장'하면 나눔경영을 떠올립니다. 기업경영의 중심에 '나눔'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첫 나눔 활동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된 활동입니다. 시작하고 보니 우리 주변에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게 보였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사업을 본격적

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고,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공감되어 지난 2011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Q. '나눔경영'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과 사회환원입니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작은 기부가 사랑과 희망을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눔을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재생산한다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Q. 리더십의 나눔도 여러 곳에서 실천하고 계신데요. 10년 넘게 대한요트협회장직도 맡고 계시죠?

2003년부터 요트협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요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해양레저를 대표

하는 스포츠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인 한국 그리고 해양도시인 부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요트협회와 더불어 요트의 저변 확대와 선수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인 요트의 육성과 대중화를 위해서 2005년 볼보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2006년 세계인드서핑선수권대회, 2014년 아시아요트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에 힘을 기울였고,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요트종목에서 금메달 4개 획득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요트의 저변 확대가 해양관련 산업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국내 등산인구의 급증이 가져온 아웃도어 시장의 급성장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변확대는 일단 안정된 수요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간의 경쟁은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겠지요. 해양스포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변확대와 산업의 연계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가 대한요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유치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저희 (주세정)에도 센터폴이라는 아웃도어브랜드가 있는데, 대한요트협회를 공식 후원하며 기능성이 겸비된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여 선수들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요트경기대회를 개최한 것 같지만, 그곳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산업적 정보와 기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양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점 늘어나면서 패셔너블한 해양스포츠 전문의류나 액세서리 등의 산업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즉 생활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해양스포츠 저변확대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영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가운데 위치한 우리나라 바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인천공항을 통해 하늘의 중심이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해양레저산업을 통해 바다의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은 관광과 스포츠, 제조업이 결합된 고부가 산업으로 장비제조 시장 규모만 세계적으로 500억달러에 달하는 블루오션인 만큼, 정부와 레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마라톤 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하고, 학계에서는 해양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마라톤 산업, 크루즈 산업 등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의 융합적 콘텐츠 개발을 시도한 'KIMA WEEK'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다니 축하드리며, 더욱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 축제로서 많은 해양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본 행사가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KIMA+**

“ 인천공항을 통해 하늘의 중심이 되었듯 해양레저산업을 통해 바다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 ”





10개의 키워드로 만나는 가을의 해운대
Haeundae

부산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해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친구, 요즘 부산에서 핫한 곳은 어디야?” 부산에 사는 나의 답변은 매년 한결같다. “여름 지나고 내려 온내!”

그렇다. 하루 100만 명이 몰려드는 여름 바닷가에서 원하던 낭만을 누리고 가기란 쉽지 않은 일. 개인적으로 부산인들의 적기는 가을녘이라 생각한다.

한여름의 부산이 금세라도 뿔어져 나올듯한 탄산음료의 짜릿함이라면 가을날의 이곳은 숙성된 와인처럼 여행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다. 올해로 열아홉 살이 된 근사한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질 10월 ..., 이즈음 부산은 적당히 시원해 산책하기에 좋고, 한낮 더위엔 바닷물에 발을 담가도 운치가 있다. 그야말로 낭만과 여유를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도심형 관광지로 변모한다는 말씀!

가을이 물드는 10월, 바다와 영화를 즐기기에 제격인 부산 해운대에서 2박 3일을 채워줄 10개의 키워드를 소개한다.

첫 번째

#01 12:00 부산 도착, 이층버스 타고 부산 속으러!

가을바람을 따라 랜스레 동실거리며 마음을 애써 붙잡지 않고 달려온 당신, 드디어 바다내음이 코를 간지럽히는 부산역에 도착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와 멋드러진 바다를 즐기 위해 부산 땅을 밟았다면 주저할 것 없이 해운대행 시티투어 버스에 몸을 맡겨라. 부산의 많고 많은 볼거리를 일목요연하게 둘러보게 해준 다음, 꿈에 그리던 해운대에 당신을 살포시 내려놓으리니.

- 부산시티투어 | 성인요금 15000원. 오전 9시~오후 4시, 매시간 45분과 15분에 부산역 출발 www.citytourbusan.com



#02 14:00 여행하기 보, 집안니 선택

숙소를 고민하는가? 방문기간이 부산국제영화제와 맞물린다면 눈여겨볼 숙소가 있다. BIFF가 객숙소로 운영할 'BIFFLE-HOUSE'다.

올해 지정된 비플하우스는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부산유스호스텔)로 영화제 기간 동안 1인당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의 전당은 물론 해운대 상영관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편리할 것이다. 혹시 조금은 특별하고 럭셔리한 여행을 계획했다면, 딱딱딱 신상호텔에 묵어보아도 좋겠다. 바람이 실린 돛을 형상화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인 2013년생 '파크하얏트 부산'은 33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광안대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짜릿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다. 31층과 32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에는 꼭 한번 둘러보자. 360도로 이어지는 통창을 통해 해운대의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면, 해운대를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게 될 것이다.

- BIFFLE-HOUSE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t. 051-709-2070 www.biff.kr
- 파크하얏트 부산 |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51 busan.park.hyat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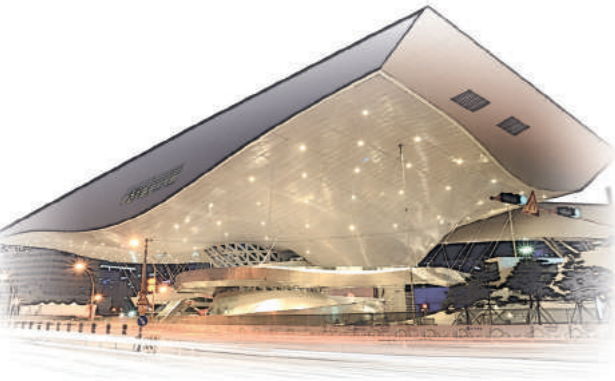


#03 16:00 뽕뽕으로 들었어! 스타들의 천국

소문은 익히 들었을 것이다. 서울 청담동과 신사동을 쥐락펴락 하는 브랜드들이 올여름 해운대에 상륙했다. 프리미엄 쇼핑몰 스타제이드가 그 주인공이다. 편집숍 '라운드'를 시작으로 브런치 카페 '콩부인'이 쇼윈도를 담당하는데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이 찾는다는 뷰티살롱 '뮤니제프'가 입점해 있다. 게다가 지금 가장 쿨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스트리트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멀티숍을 비롯해 감각적인 리빙아이템이 가득한 콜렉션 숍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호사스런 볼거리에 지갑 단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때마침 부산이 부산관광그랜드세일을 선언하고 5~70% 할인가를 적용중이다. 오는 11월 12일까지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쇼핑, 음식,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할인의 매력은 기본, 먹거리 볼거리는 덤으로 드리는 쇼핑축제도 활용해보자.

- 스타 제이드 | 해운대경동제이드아파트 1~3층 t.051-868-1358
- 2014 부산관광그랜드세일 | 9.12(금)~11.12(수)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부산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쿠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5~70% 할인가 적용 <http://busangrandsale.or.kr>





#04 18:00 시네마로 변신하는 시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의 도시, 후끈 달아오른 영화제의 열기를 거리 곳곳에서 누리는 일은 10월의 부산여행에서 만끽할 수 있는 궁극의 멋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부산 시내 7개 극장 33개관에서 세계 79개국 314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개폐막작 상영은 물론 다채로운 영화제 행사를 만끽할 수 있는 영화의 전당은 영화제를 누리기에 위한 더 없이 훌륭한 장소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에는 스튜디오를 소개하고 영화 세트를 관람할 수 있는 인근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할만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 부산국제영화제 | 영화제 홈페이지에는 영화관련 일정표는 물론 부산관광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소개돼 있다. www.biff.kr

즐거워라

#05 10:00 요트투어만으로는 기쁘다 그리고...

여태껏 해변에서 바다를 감상한 당신이라면, 이제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다로 나아가보자. 우선, 요즘 부산의 핫플레이스인 'The Bay 101'로 가야 한다. 'The Bay 101'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marina 시설인 '클럽101'과 외식업소, 트렌디한 디자인 브랜드를 갖춘 편집숍 갤러리101 등이 들어선 클럽하우스다.

'클럽101'에서는 퍼블릭 요트투어와 낭만의 선셋 투어, 럭셔리 투어와 같은 요트체험을 도와줄 것이다. 특히, 글로벌해양레저축제인 'KIMA WEEK' 기간(9월 29일~10월 5일)중에는 무료체험 이벤트가 진행되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마린 비프존이 이곳에 마련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 같다.

혹시 맥주와 수다를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해질 무렵 산책삼아 다시 한 번 들러도 좋다. 밤바다에 비친 마천루 불빛을 감상하며 이국적인 정취에 취하고 싶다면 야외 테이크아웃 자리를 잡아야 한다. fingers & chat에서 새우튀김과 프렌치프라이 세트, 차가운 생맥주 한잔을 시킨 후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미 파워 블로그와 SNS의 주인공이 된 'The Bay 101'은 해양레저와 더불어 부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명소다.

- The Bay 101 | 해운대구 동백로 52 t.051)726-8888 클럽101 blue-marine.co.kr



#06 12:00 달맞이언덕에선 맛보는 스테이크 등어 런치

요트 투어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품격 넘치는 런치를 위해 달맞이언덕길로 걸음을 옮겨보자. 최근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메르씨엘에서는 맛에 관한 한 일가견 있다는 이들이 모두 엄지를 치켜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정통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12년동안 세계적인 스타 셰프 레스토랑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아온 윤화영 셰프의 첫 레스토랑이기도 하다. 프랑스요리가 부담스럽다면 로스트비프가 맛있는 테이블온더문도 좋겠고, 캐주얼한 누들을 즐기고 싶다면 면식이 앞에 줄을 서보는 것도 미식의 행복을 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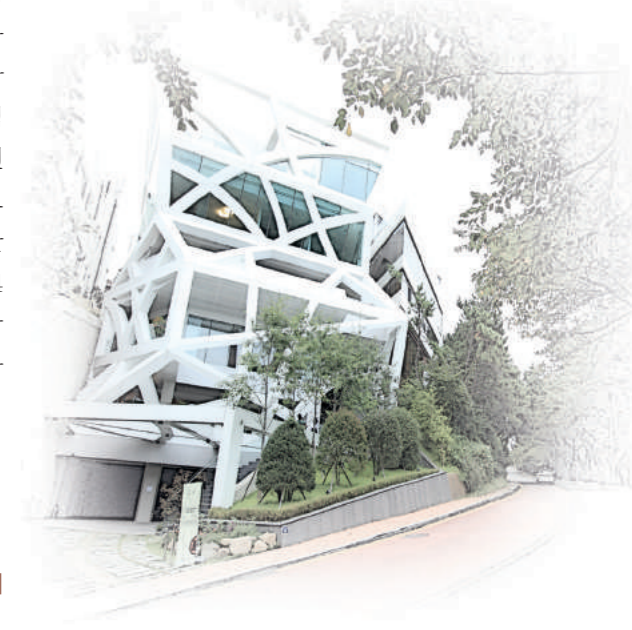
- 메르씨엘 |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54 www.merciel.kr
- 테이블온더문 | 해운대구 달맞이길 189 t.051)746-0023
- 면식이 | 해운대구 달맞이길 193 t.051)747-4611



#07 15:00 느린 걸음 갤러리 산책

비밀을 간직한 듯 미로처럼 얽힌 달맞이언덕의 골목골목에는 매력 충만한 갤러리들이 숨어있다. 동양의 몽마르트라는 애칭답게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하다. 감각적인 전시회로 입소문이 난 메르씨엘 비스 갤러리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아트숍이 큰 볼거리다. 올해로 25년째 굿직한 전시들로 작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베테랑 화랑 조현갤러리와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인 백화랑, 기차길 옆 노란색 나무 건물이 인상적인 바나나롱갤러리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게다가 올 가을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부산비엔날레도 만날 수 있다. '세상 속에 거주하기 Inhabiting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4 부산비엔날레는 11월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문화회관 그리고 고려제강수영공장에서 30개국 160명(팀)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아트에 문외한이라도 좋다. 적어도 가을단풍만큼 화려한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 달맞이언덕 주요 갤러리 | 백화랑 051-722-2201
메르씨엘 비스갤러리 051-747-9305
바나나롱갤러리 051-741-5106
조현갤러리 051-747-8853
- 2014부산비엔날레 | 2014. 9. 20~11. 22(64일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외 <http://www.busanbiennale.org/>



#8 18:00 힐링 파라다이스, 스파

벽차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도시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살짝 느긋함을 누리볼 시간. 바로 당신의 피곤해진 몸을 치유해줄 특별한 스파가 기다리고 있다. 부산 최고의 스파로 손꼽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씨메르와 리트리트 스파 순다리를 추천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본관 4층에 위치한 오션 스파 씨메르는 투숙객들만 입장을 가능하다. 굳이 숙소까지 옮겨가며 이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야외테크의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답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해변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노천 스파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호젓하게 즐기는 휴식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가하면 최고의 미를 사랑하는 미국 슈퍼모델 크리스티 텔링턴이 직접 디렉팅한 브랜드 SUNDARI는 최고급 천연성분 화장품과 오리엔탈 테라피로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 근사한 휴식을 선사해 준다. 신관 5층에 위치한 순다리 스파는 탁트인 바다전망을 누리며 원하는 코스별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미리 예약을 해야만 이용가능 하다.

- 씨메르 | 해운대구 중동 1408-5 파라다이스 호텔 본관 4층 t.051-749-2358
- 순다리 리트리트 스파 | 파라다이스 호텔 신관 5층 t.051-743-6105



마지막날

#9 08:00 든든한 아침밥은 미포에서 한그릇

여행 마지막 날엔 미포선착장 부근의 맛집에서 옹골진 아침상을 받아보자. 먼저, 뜨끈한 국물 한술에 지난밤의 숙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대구탕이 기다린다. 국물 맛이 진하고 고소해 어떤 이는 북국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속씨원한 대구탕. 쫄깃하고 푸짐한 대구살과 쫄쫄 국물이 일품인 이 집은 툭툭 터지는 알과 깻잎을 넣고 부친 계란말이, 일명 알말이도 인기 메뉴다. 특히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한 만큼 영화제에 온 배우와 우연히 마주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 근처에 위치한 '새아침식당'은 생선구이 정식을 맛볼 수 있는 집이다. 집밥이 그리워 찾아온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 이곳은 짭조름하게 간이 밴 모듬 생선구이에 소소한 밑반찬이 딱 엄마 손맛 그대로. 싱싱한 생선구이 뿐만 아니라 칼칼한 김치찌개나 구수한 된장찌개가 한 뚝배기 그대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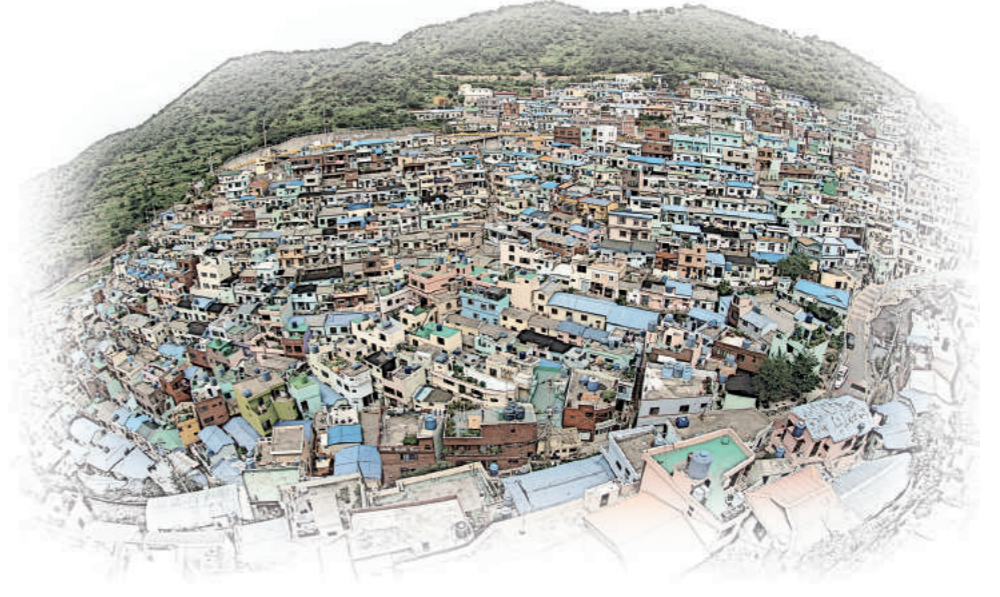
- 속씨원한 대구탕 |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28 새아침맛집 t.051-744-0238
- 새아침식당 |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28 새아침맛집 t.051-742-4053



#10 11:00 감천문화마을을 현여울길

이대로 부산을 떠나기가 아쉽다면, 해운대를 떠나 부산역에 가기 전에 이곳에 들러보자. '부산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영도 현여울길, '한국의 마추픽추'란 별명에 1박2일팀도 다녀간 감천문화마을은 긴 시간의 떠 위에서 현재의 삶을 다면체로 보게 하는 흔치 않은 공간이다. 소박하지만 인정스런 사람들과 눈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곳에선 몇 줄이나마 트래블로그를 끄적이고 싶을 것이다. **KIMA+**

- 영도 현여울길 | 영도구 영선동
- 감천문화마을 | www.gamcheon.or.kr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 해양레저 대중화와 해양레저산업·해양관광의 공생발전 ”

PLANNING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INFRA STRUCTURE

해양레포츠의 마리나시설 건립 운영에 기여한다.

INDUSTRY

해양레포츠 장비(크루즈, 요트 등)관련 기업 해양레저 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선도한다.

COAST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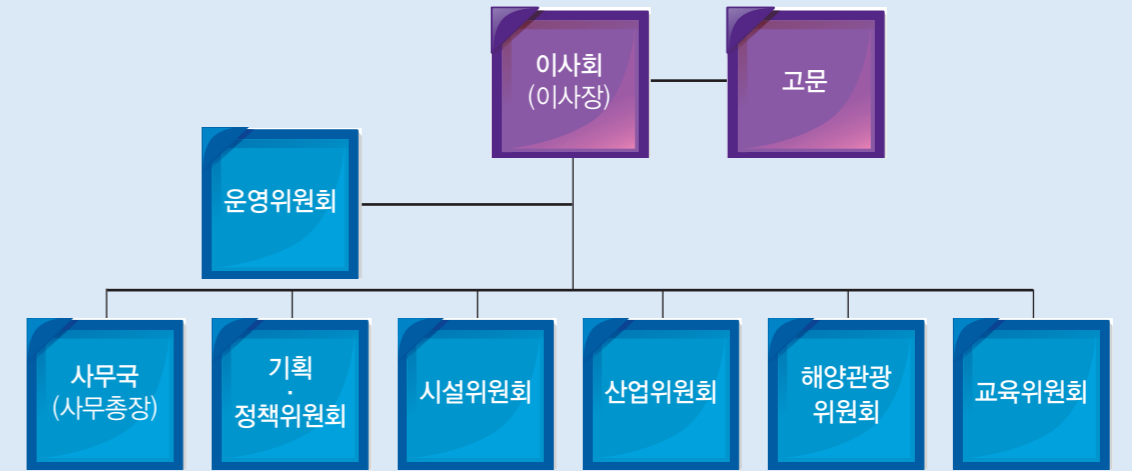
해양레저를 활용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전략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EDUCATION

해양레포츠 등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한다.



ORGANIZATION



고문	서병수 부산광역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순호 대한요트협회 회장	감사	김영욱 법무법인 좋은 구성원 변호사 김월기 삼일회계법인 전무
대표이사장	문철호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	운영위원장(사무총장)	여한웅 부산MBC해양스포츠연구소장
이사장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민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기획정책위원장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연구위원 수석부위원장 조우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교수
이사	Arthur Tay ㈜SUTL그룹 회장(싱가포르)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철 ㈜푸른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김인학 (사)한국마리나항만협회 회장 김성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수병 부산관광공사 사장 김현경 ㈜팬스타라인닷컴 대표이사 회장 김효영 부산지방공단 스포월드 이사장 류재혁 ㈜한진에스엠 대표이사 사장 박수관 YC Tec Korea 대표이사 회장 박용수 ㈜골든블루 회장 백석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백승용 ㈜삼주 회장 (공 석)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여한웅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무총장 오성근 ㈜백스코 대표이사 사장 이화석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형관 ㈜문화방송 스포츠국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홍군선 (재)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기호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시설위원장	김창주 ㈜SUTL 레저코리아 한국지사장 수석부위원장 김학철 파워마린(주) 대표
		산업위원장	심상목 중소기업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장 수석부위원장 도순기 현대요트(주) 대표이사 사장
		해양관광위원장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단 단장
		교육위원장	김용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수석부위원장 오세경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총장
		운영위원	고승우 현대산업개발(주) 부장 김명진 파이스타마린(주) 대표이사 김종태 ㈜한진에스엠 상무이사 김창민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철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김태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생태팀장 류재동 부산광역시요트협회 부회장 배기범 (재)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 팀장 심민보 대한요트협회 외양세일링위원회 부회장 원효희 ㈜백스코 전시2팀장 윤정미 부산항만공사 창조경영팀 팀장 이순학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장 최재형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회 사무총장

KIMA 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대한민국 해양레저중심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산업전

2014. 10. 2(목) ▶ 10. 5(일)
BEXCO |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최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BEXCO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사무국 | TEL : 051-740-8600 | FAX : 051-740-7640
| E-mail : boat@bexco.co.kr | www.boatshowbusan.com

F E E L T H E O C E A N D I A M O N B A Y

해양레저의 First Class



SAMJOO
DIAMOND BAY

부산을 보다, 삼주 다이아몬드베이를 만나다!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부산의 절경을 만난다.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다른 각도에서 즐기는 새로운 절경의 뷰!
삼주 다이아몬드베이는 천혜의 해안절경과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극대화 시킨 요트세일링으로 새로운 부산관광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해양레저의 First Class -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럭셔리 세일링 메가요트 운항

- 1일 6항차(레굴러, 선셋)/ 부산 연안항로 a,b,c 코스 운항 / Charter

MIDAS 메가요트 (100인승)

Real Sailing Yacht

72피트 규모의 대형 카타마란 요트는 자연 그대로의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세일요트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의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제원

· 72ft 카타마란 유람선 / 구조 : 22m×9.2m / B1, 1~2F

부대시설

· 스테이지 / 갤러리 / 미니바 / 영상시설 / DJ BOX / 각종 편의시설



 SAMJOO
DIAMOND BAY

608-090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01 (용호동) 용호만유람선터미널 2F
Tel. 051.200.0002 Fax. 051.623.1559

시간을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탄생

시간을 초월한 듯,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처럼
최고의 맛과 품격으로 탄생한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36.5도의 부드러운 목넘김과 오랜 전통을 간직한 블렌딩까지-
빛나는 내일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GOLDENBLUE
The Diamond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GOLDENBLUE
Super Premium Whisky
The Diamond
Exclusive Special Release
슈퍼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450ml 36.5% ALC

경고: 사진 속 술주는 건강해나 질병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의 미래는
시민의 자부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KIMA2014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주관 **BEXCO**

후원  대한요트협회 KOREA SAILING FEDERATION  KSPOT  한국관광공사  BPAV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마린리저스-스타피쉬 동차(주)  (주)골든블루  (주)삼두 SAMUDO CO., LTD.

www.kimaweek.org